

박우량 군수 “새로운 섬의 시대 1004섬 신안 만들기 주력”

●민선 8기 2주년

지역소멸 대응·햇빛 연금 추진 등 5대 군정 방향 제시 1섬 1뮤지엄·1정원화사업...미래 먹거리 문화·예술 선도

민선 8기 취임 2주년 맞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새로운 섬의 시대를 열기 위한 1004섬 신안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

10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군정 공연장에서 민선 8기 2주년 군정 주요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신안군 출몰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2년의 주요성과와 앞으로의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며 신안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주제로 변화된 신안군의 위상을 역설하고 군정 주요성과 및 운영 방향의 순으로 발표했다.

발표 내용으로는 ▲인구소멸·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신안 ▲문화·예술이 가득한 섬(1섬 1뮤지엄) ▲사계절 꽃 피고 숲이 울창한 섬(1섬 1정원) ▲다양한 정책을 통한 소득사업 발굴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제적 안정(햇빛·바람 연금) 등 주요 5대 군정 방향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1



박우량 신안군수가 최근 군정 공연장에서 민선 8기 2주년 주요성과 보고회를 열고 주요성과와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위, ‘재정자립도 하위’라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지난해 인구 179명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명소로 발돋움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문화·예술을 선도하기 위해 신안군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적인 예술 거장들의 작품을 유치하고 섬마다 상징적 미술관을 유치하는 1섬 1뮤지엄 조성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문화축제도 동시에 추진한다.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 신안을 알리는 ‘피아노의 섬’ 축제, 프랑스와의 과거 인연을 축제로 부활시킨 ‘삼막(삼패인-막걸리)’ 축제 등 색다르고 다양한 이야기들로 가득한 섬만의 매력을 다졌다.

1섬 1정원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1개의 읍·면으로 구성된 본도 뿐만 아니라 선도, 병풍도, 옥도 등 작은 섬에도 꽃과 나무로 변화의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청년 어선임대 사업, 만원 주택

사업, 천연자원을 통해 얻은 햇빛·바람 연금 등은 일자리 제공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귀농·귀어인에게 희망을 주고 전출을 방지함으로써 인구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이 밖에도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산-자라-추포-비금 간 연도교 사업, 암태 신석-수곡 도로시설 개선 등 교통체증 감소를 위한 선형개량 및 확장 사업이 진행 중이다.

박우량 군수는 “공직자들의 노력과 신안군민들의 협조, 군민의 성원이 더해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며 “군민이 행복한 신안 만들기를 위해 오늘이 끝이 아닌, 모두가 자기 자리에 있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안=양홍기자

“무더위 탈출”...함평군, 여름철 피서객 맞이 ‘분주’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함평천지길 추천

함평군이 한여름 무더위를 잊게 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 여름철 피서객 맞이 준비로 분주하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엑스포공원 일대에 피서객을 맞이할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함평군은 여름철 휴가 장소로 ‘함평엑스포공원 물놀이장(사진)’을 추천한다. ‘나비대축제’와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개최되는 엑스포공원은 여름이면 물놀이장으로 변신한다.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되는 물놀이장은 2천400㎡ 부지에 파도풀, 어린이풀, 유아풀, 슬라이드 풀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남

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매년 함평의 여름 명소 중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리는 물놀이장은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거주민들에게도 입소문이 자자해, 입장객 대기 줄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다.

1일 최대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100% 수돗물을 사용해 깨끗한 수질로 정평이 나 있다. 무료 그늘막, 쉼터, 피크닉 테이블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이용객 편의를 더해줄 배달음식 반입도 가능하다.

또한 물놀이장 특별 이벤트로 ‘DJ 버블파티’가 열린다. 버블파티 시간은 매주 주말과 공휴일 오후 5시에 진행되



며, 물놀이장 개장 첫 주말인 20일에는 오후 2시에 운영할 계획이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 속을 걸으며 힐링과 휴식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함평천지길’도 추천한다.

함평천지길은 수산봉 둘레길, 함평천 생태습지, 도시공원길(화양근린공원)로 구성된 총 6km의 도보길이다.

시원한 숲길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과 함께 천연생태습지를 돌아볼 수 있

는 느낌의 미학 코스로 ‘낙우송 길’ 등이 펼쳐진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물론, 포토존과 조형물이 마련돼 있어 인증샷을 남기기 좋은 명소로도 꼽히고 있다.

어스름이 내려앉은 오후, 엑스포공원 일원에는 알록달록한 야간경관 조명이 켜져 늦은 시간에도 함평천지길을 걸을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관광객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물놀이를 하며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물놀이장 이외에도 함평천지길, 자동차극장 등을 방문해 올여름 함평에서 시원하게 보내고 행복한 여름날의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기자



강진군, 청년마을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1기 스테이 돌담빌리지 입단...문화·예술 청년 창작활동 지원

강진군이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청년 지원’을 내세우며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섰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읍 내 위치한 청년마을에서 전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의 ‘스테이 돌담빌리지 1기 입단식’이 열렸다. (사진)

입단식에는 서울, 대전, 전남 등에서 참여한 5명의 문화·예술 프리랜서 청년들과 강진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4박5일 동안 병영면에 있는 숙소에서 머물며 다양한 체험 및 창작활동을 진행했다.

‘스테이 돌담빌리지’는 문화·예술 분

야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지역의 계절을 주제로 개인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강진청년협동조합 편들’이 상품화해 판매한다.

매기수당 5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3월 1기를 시작으로 오는 31일까지 5기가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돌담이 마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고 군민의 섬세한 노후와 비전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며 “더 많은 청년들이 군에서 꿈을 이루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진=정영록기자

목포해경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목포해양경찰서는 10일 ‘전날 목포 몬테소리유치원 등에 방문해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연안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은 해양경찰이 직접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을 방문해 대상자 맞춤형 ▲물놀이 안전수칙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CPR) 이론 및 실습을 교육하는 적극행정 프로그램이다. 이번 활동은 9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릴 때부터 해양안전문화를 습득할 수 있도록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안전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목포=정해선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지난 9일 목포 몬테소리유치원에 방문해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했다. 사진은 목포해경 관계자가 원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등 연안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완도 섬마을에 전국 최초 ‘112한달음선’ 뜬다 무안군,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결

경찰 미배치 섬에 선박 26척 배치...주민 안전망 구축

완도군은 “섬 주민의 치안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112한달음선’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완도군은 최근 김현철 완도부군수,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김광철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112한달음선 대원 26명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112한달음선’은 인구가 적고 경찰이 미배치된 섬 주민의 치안을 위해 완도군이 지원하고 완도경찰서가 지정·요청해 운영하는 민간 선박이다.

‘112한달음선’은 범죄나 재난 등 긴급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한다는 의미로, 한 번에 달려간다는 뜻의 ‘한달음’을 붙여 만든 이름이다.

완도군의 5개 유인도서 중 파출소와 치안센터가 있는 곳은 14곳 뿐이다. ‘112한달음선’은 12개 읍·면에 26척이 배치됐으며 대원들은 선박을 소유한 어업·양식업, 자영업, 마을 이장 등 민간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하수도요금은 생산·처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재정건전성 확보, 낮은 요금 현실화율에 따라 당초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상

상·하수도요금 등 2026년 6월분까지 인상 유예

무안군은 10일 “고물가로 인한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3종(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상수도도는 2017년 이후 7년간, 하수도도는 2019년 이후 5년간 요금 동결이 이어지며,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분까지 2년간 추가 유예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공공요금 동결로 군민 가계경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급 기관의 물가안정 정책과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고려해 유예를 결정했다.

무안군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방 물가 품목 72종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착한가격협약 활성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 등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공공요금 동결로 군민 가계경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상호기자

해남군, 장기성장동력 ‘2030 프로젝트’ 속도

기회발전특구 지정·북해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박차’

정부 기회발전특구에 2개소가 선정된 해남군이 장기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해남 2030 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민선 8기 해남 2030 프로젝트를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북해해양레저관광도시 거점 조성, 고속철도(KTX) 해남노선 연장 등 3대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 2개소, 약 86만9천㎡(26만평)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해남군과 영암군을 잇는 영암호 일원을 전남 서남권 대표 해양레저 관광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 사업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최근 목포대 남악캠퍼스 컨벤션을 열어 제14차 전국해양문화화학자대회 해남대회에서 해양레저관광중심 거점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발전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대회에서는 해양레저산업의 성장과

사용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국내 해양레저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 영암호 북해해양레저 관광도시 구상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도 높은 토론으로 해양레저 관광 중심도시로 조성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해남군은 전남도, 영암군과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 3개 지구(구상·삼포·삼호)와 영암호를 연계하는 해양레저 관광 기반 구축을 통해 영암호 일대를 해양레저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도 역점 추진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양레저 관광 시장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3% 이상 꾸준한 성장과 함께 전 세계 GDP의 전체 일지리의 10%이상을 차지하는 미래 핵심 산업”이라며 “내수면과 해양 자원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해양레저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풍부한 영암호를 활용해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필용기자